

Jean Paul Gaultier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

조 민 정[†]

리앤퐁 코리아

A study on Surrealism Expressed in Jean Paul Gaultier's works

Min Jung, Cho[†]

Li & Fung Korea

(2008. 4. 29. 접수/2008. 5. 22. 채택)

Abstract

The surrealism art form comes from the world of unconsciousness. Based on its expression of the world of imaginary, it boldly demonstrates the arrangement and the forms of contradicted objects and the development of collage, montage, and protage techniques in the works which had a big influence on the growth of the modern art. The ideology and the modeling characteristics shown in the surrealism had various expressive forms and meanings in the modern compound expression and it grew out of the former standarlized forms and brought diversity and individuality based on the sensibility of the new avant-garde art form and showed great potential as it presented harmony in the multiple forms of ar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was to analyze the influences that were put on the surrealist fashion art works and the works of the representative designer, Jean Paul Gotie. The characteristics of Jean Paul Gotie's surrealist fashion comes from destruction, sexual image, and the mixture of heterogeneous. It is evident that the surrealist fashion went beyond certain groups of avant-gardists' salvation of the world and were put to practice use, reaching out to the ordinary consumers. This was resulted from the revolutionary movement called, "anti-mode van fashion" led by Gotie. The surrealist style will be led by various techniques and trends and developed through new characteristics in multicuture merged with various fashion styles.

Key words : Jean Paul Gotie(장 폴 고티에), Surrealism(초현실주의), Depaysement (데페이즈망), Automatism (오토마티즘), Trompe l'oeil (트롱프뢰이유)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현실주의란 꿈의 힘을 빌어 현실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 창조된 괴이한 작품을 지칭하는 말로써 초현실주의적 예술의 원천은 무의식의 세계이다. 꿈과 무의식의 세계, 공상의 세계를 내용으로 모순된 물체

의 배치와 형태를 대담하게 표현하였으며, 작품에서 콜라주, 몽타주, 프로타주 등의 기법 개발은 현대 미술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초현실주의의 목적은 합리적 사고의 활동 영역 뒤에 잠재된 정신적 경험의 확장에 있었고 초현실주의자들에 의한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의 신비, 비밀, 놀라움에 대한 의식을 창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또한, 초현실주의에 나타난 이념과 조형적 특성은 여러 가지 표현양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의미로 현대 복식에 표현되었으며, 기존의 획일화된 복식에서 탈피하여 새롭고 전

[†]Corresponding author: Min Jung, Cho

E-mail: minjung-cho@hanmail.net

위적인 감각으로 복식의 다양화와 개성화를 가져오므로써 복식과 예술의 조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¹⁾ 무의식 세계에서 무한한 꿈과 상상력의 세계를 표현하는 초현실주의자들은 신비주의나 원시적인 것, 원초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다. 또한 일상적 현실의 특징들이 수많은 기교와 방법으로 무엇인가의 존재함을 느끼며, 인간의 내면세계를 탐구하고자 과감히 과거의 예술형식을 탈피하였다.²⁾

틀에 얽매이지 않는 초현실주의 스타일이 지금 패션의 트렌드인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는 1970년대에 등장하여 파리 패션계의 판도를 변화시킨 디자이너이다. 패션계의 악동으로 불리는 그는 1978년 파리 컬렉션에 데뷔한 이후 기상천외하고 색시하게, 때로는 유머스럽고 도발적인 메시지를 표현하는 등 항상 새로움을 선보였다. 그는 매 시즌마다 색시한 여성스러움과 중성적인 분위기, 향락주의와 종교, 부르주아의 전통과 길거리 문화 등 서로 모순되는 요소들을 혼합시켜 왔다. 그는 남자들에게 스카트를 입히고 속옷을 겉옷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상식의 평범함을 거부하고 색시, 쇼킹, 전위, 유머라는 이미지를 자신만의 감각으로 표현한 흥미로운 패션 세계를 만들었다. 본 논문은 장 폴 고티에의 패션을 초현실주의로 정의하고, 그의 작품 속에서 나타난 패션의 특징을 분석하여 그가 현대 패션 산업에 준 영향력을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의 작품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와 예술서적등의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시각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컬렉션에 수록된 사진자료, 인터넷등의 자료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의 특성과 장 폴 고티에의 작품 중 1986년부터 초현실주의의 작품을 연구하며, 오프뚜르 컬렉션 작품에 나타난 2003' FW~2006' SS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초현실주의의 개념 및 정의

제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부터 제 2차 세계

대전 발발 직전까지 약 20년간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문학, 예술이다. 양차 세계대전 중 가장 폭넓게 확산되었으며 가장 논쟁적인 예술운동이었다. 초현실주의의 영향은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대단한 것이었다. 초현실주의의 근본 뿌리는 입체파 운동이다. 자아를 절대시하고 그것에 무제한의 능력을 부여한 낭만주의가 초현실주의의 선구자가 되었으며, 현실을 초월한 세계를 탐구하고 현대 예술의 전위적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초현실주의의 태동원인으로 Dadaism을 들 수 있다.^{3,4)} Dadaism은 문학, 예술상의 전위운동으로서 초기에는 주로 문인들을 중심으로 실험적인 시의 창작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초현실주의의 충격은 대중미술의 물체에 대한 관심, 사진술적인 영상에 매혹 되는 것, 그리고 언어적 유희에 대한 매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꿈이 지니고 있는 여러 힘의 찬양, 자동기술에 대한 깊은 신뢰, 초현실적 사실의 열렬한 탐구와 평행하여 사회생활이 개인에게 강제하는 모든 것의 금지를 문제 삼고 인간의 내면에 관심을 보이는 학문이 늘어났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이다. 인간의 무의식적인 행동 그 이면에 어릴적 혹은 그 성장기의 영향이 존재하며, 인간의 꿈을 통하여 내면의 심리적 욕구를 유추해내는 것이다.⁵⁾ 예술의 형식을 부정하는 일종의 파괴적 허무주의의 성격을 띠고 예술의 종래의 개념을 무시하였던 다다이스트들은 전통의 가치관을 부정하였으며 현실의 보이지 않는 세계, 내면의 초현실적인 부분을 표현함으로써, 실험과 모험으로 시작하는 예술운동은 콜라주(collage), 릴리프(relief), 프로타쥬(frottage), 앗상블라쥬(assemblage) 등 새로운 기법과 소재의 혁신을 가져왔고, 자유와 현실의 극적인 대결은 파괴와 반항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었다.^{6,7)}

초현실주의의 성과는 오토마티즘(Automatism)⁸⁾의 방법을 개발함에 의해 논리와 합리성에 의하여 자신을 속박하는 예술의 기능에 진격한 자유와 해방을 가져왔다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초현실주의는 현대의 전위적 미술 발전에 근원적인 영향을 주어 현실과 상상의 세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명백한 것과 불가사의한 것, 존재와 무(無)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로 확장시켜 가는데 기여하였다.⁹⁾

2. 초현실주의의 조형성과 형태적 특성

초현실주의에 나타난 이념과 조형적 특성은 여러 가지 표현양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의미로 현대 북

식에 표현되었으며, 기존의 획일화된 복식에서 탈피하여 새롭고 전위적인 감각으로 복식의 다양화와 개성화를 가져옴으로써 복식과 예술의 조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현대 복식에 있어서 초현실주의 사고에 의한 다양한 오브제의 도입은 새롭고 혁신적인 시도로써 무한한 창작의 가능성과 기존 복식의 형태개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가구, 건축, 장식품 등과 같은 주변의 다양한 사물들을 오브제화 하여 복식의 구조적인 형태에 변형을 주었으며, 새롭고 전위적인 감각의 복식창조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오브제의 도입은 사물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을 버리고 모든 사물이 조형화 될 수 있음을 부여하였다.

초현실주의의 형태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어린 시절의 체험, 강박관념의 잠재 등의 상상력에 의한 형태가 있다. 둘째, 정신 착란적 연상처럼 화면에 들이상의 이미지가 중첩되는 이중 연상적 이미지이다. 셋째, 에로스를 원초적인 생명력으로 간주하여 여성의 육체 또는 그 일부를 확대한 이미지이고, 넷째는 형태가 왜곡 변형된 데포르마시옹(deformation)의 형태이다. 마지막은 원시주의적 취향에서 비롯되어진 토벳적 이미지이다.¹⁰⁾

이와 같은 시각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초현실주의의 불가사의한 세계, 환타지에 대한 표현은 보는 이에게 신선한 충격과 동시에 즐거움과 유머스러움을 선사하며, 문화, 미술, 음악, 영화, 패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전개되었다.

3. 초현실주의의 표현기법

초현실주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양상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사실적 초현실주의와 추상적 초현실주의로 분류하며, 초현실주의 회화에서 나타난 사실적 표현은 그 형상성이 이전에 존재했던 사실주의 방식이 아니라 데페이즈망(Depaysement)¹¹⁾이라고 하는 서로 관계없는 형상들의 연결이나 현실에서 불가능한 형상 이미지의 결합을 통해 현실에서 불가능한 어떤 정서나 감정, 사고를 전달하는 것이다. 오토마티즘(Automatism)에서처럼 유기적 추상이거나 대상성이 무시되고 작가의 정신 상태나 마음의 상태 자체가 대상이 되어서 대상의 재현에서 출발하지 않는 추상적인 양식이다. 그 새로운 대상으로 인해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 심성 그 자체를 채택한 것이며, 일정한 윤곽도 없는 선의 자유스러움과 다양한 변화가 순수한 창작성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미로는 순

수한 무의식의 상태에서 물방울이 튕뒀한 채색된 얼룩들을 화폭에 채웠으며, 원형적인 추상, 혹은 율동적인 리듬을 가진 부호나 기호에 가까운 형태를 독자적인 조형언어로 만들어 자발적인 표현을 하였다. 초현실주의는 그림의 대상물들은 처음 보기에는 구상적인 요소들처럼 보이나 그 사물들은 작가의 내적인 이야기가 포함되면서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가거나 혹은 사건의 실마리를 갖고 있는 복선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실체사물을 의인화 시켜 작가의 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동기술법이 있는데 보통 아무 생각없는 상태에서 떠오르는 사물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¹²⁾

4.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의 특성

1)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1871-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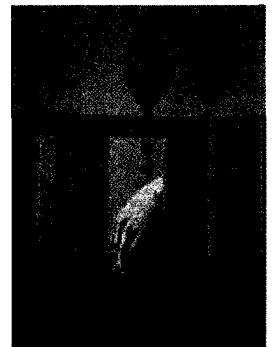
에른스트의 플라주르는 단순히 화면 구성에 있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이미지를 전달하면서 일상적인 사물들의 전치, 병치에 의한 불합리한 정신세계를 이끌어 갔다<그림 1, 2>.

2) 호안 미로 (Joan Miro, 1893-)

미로는 두가지 유형의 작품세계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무의식적 세계를 자동기술법으로 강하게 나타내는 유형으로, 두껍고 누런 천 위에 형질이나 스펀지로 무엇인가 의식하지 않고 닦치는 대로 물감을 뿌리는 작업과, 두 번째는 근대 추상 예술에 있어서 생물의 형태를 상징하는 유형이었다<그림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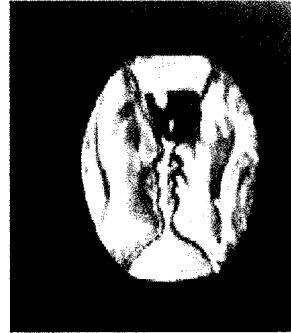
<그림 1> Max Ernst (1923)
"The Wavering Woman",
Masterpieces of 20th Cent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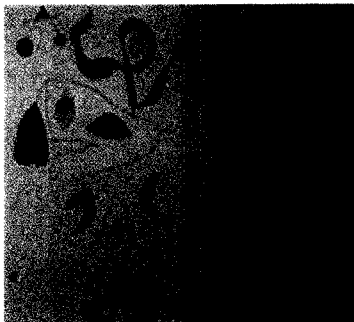
<그림 2> Max Ernst (1923)
"At the First Clear World"
Masterpieces of 20th Cent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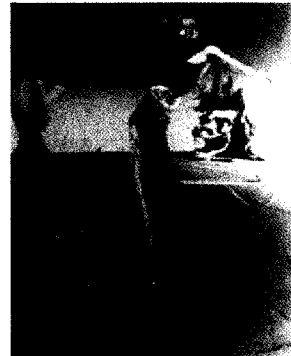
<그림 3> Joan Miro (1918) 'Standing Nude', The Saint Louis Art Museum



<그림 7> Salvador Dali (1935) "Woman with a Head of Roses", Fashion & Surrealism



<그림 4> Joan Miro (1945) "Women and Birds in the Night", Masterpieces of 20th Century



<그림 8> Salvador Dali (1949) "Face-Chalice Profiles Pin" Kunsthau, Zurich Minami Art Museum, Tokyo Fashion & Surrealism



<그림 5> Rene Magritte (1967) "The Art of Living", Private Collection



<그림 6> Rene Magritte (1947) "Philosophy in the Boudoir", Private C., Washington D.C

현실에서 불가능한 어떤 정서나 감정, 사고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림 5, 6>.

4)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1904-1989)

인간의 꿈이나 무의식의 세계, 또는 비합리적, 환상의 세계를 극단적인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는 달리, 작품은 의도적 왜곡으로 불가사의한 이미지를 창출해 내었고 그러한 이미지에서 환상적인 느낌을 주었다. 또한 그는 초현실주의에 많은 영향을 미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그림 7, 8>.

3) 르네 마그리트 (Rene Magritte, 1898-1976)

초현실주의 회화에서 나타난 사실적 표현은 그 형상성이 이전에 존재했던 사실주의 방식이 아니라 데페이즈망이라고 하는 서로 관계없는 형상들의 연결이나 현실에서 불가능한 형상이미지의 결합을 통해

5. 초현실주의 영향의 패션

초현실주의자들은 행위와 작품 활동을 통해서 현실성에 대한 새로운 욕구를 창조 하였으며, 비합리성과 불가사의를 이용해서 의식적인 사고과정을 분열시키고, 잠재의식의 활동을 해방시키려고 하였다. 오

늘날 정치적 불안과 어둡고 무거운 현실에 대한 반동으로, 패션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진지함’ 대신 ‘가벼움’을 추구하고, 놀람과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아이템의 부조화는 이질적인 재질의 조화라고도 볼 수 있다. 부드러운 소재와 거친 소재, 비치는 소재와 두꺼운 소재, 고급소재와 저급소재 즉, 벨벳과 데님, 레이스와 가죽 등 의외적인 감각의 코디네이션은 기존의 모든 틀에 박힌 조화와 미에 대한 모방에 식상하여 신선한 영감의 근원, 정신적 탈출구를 모색하던 16세기 매너리스트 예술가들이 즐겨 사용하던 기법이기도 하였다. 이성과 지배를 받지 않는 공상 환상의 사실성 추상성을 내포 하였으며, 상상적 공간, 비현실의 공간을 이용하여 억압된 무의식의 세계를 가능한 한 참되게 표현하려는 회화, 시, 사진, 영화 속에서 현실적인 연상을 뛰어넘는 불가사의 한 것, 비합리적인 것, 우연한 것 등을 표현하였다.

의상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의 위치 전환법의 예로서, 얼굴의 눈, 입술 등을 의상의 일부분에 나타내거나 신체의 감추어진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 유방을 의상의 겉에 그려 넣거나 발가락을 구두 겉 표면에 그려 넣는 등의 디자인을 보여 주었다. 이 외에도 해양 생물, 새, 나무, 꽃, 나비 등 자연물을 의상에 표현하였으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소재들을 의상에 위치 전환하여 반이성적인 표현을 시도하였다.^{13,14)} 또한 눈속임, 오브제의 도입등과 어린이 장난과 같은 반이성적인 내적 표현이나 이질적인 것들을 서로 융합시킨 표현 기법은 의상의 유희적인 요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첫째, 무의식의 심연에 작가의 어린 시절의 체험, 혹은 강박 관념의 잠재의식 등의로부터 상상력에 의한 형태를 들 수 있다.

둘째, 정신 착란적 연상처럼 화면에 둘 이상의 이미지가 중첩되는 이중 연상적 이미지인데 이미지는 고유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상호 침투되어 새로운 통합적 질서를 가진 이미지로 나타난다.

셋째, 성적이미지로 프로이트에 의해 영향을 받은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에로스를 원초적인 생명력으로 간주하여, 여성의 육체 또는 그 일부를 확대해 비유적으로 묘사한 이미지가 등장한다. 성이 대변하는 본능의 세계는 동서고금에 공통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초현실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성적인 이미지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모순과 대립이 용해되는 지점을 통해 초 현실성을 표출 할 수 있다.

넷째, 데페이즈망을 인한 형태가 왜곡 변형된 이미지로 데포르마시옹(Deformation)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초현실주의는 꿈을 현실로 접근하는 방법의 새로운 시각과 시도으로써 시각적으로 긴장감을 주면서 신선한 충격을 줌과 동시에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과 유머스러움을 선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초현실주의의 영향력은 문화, 미술, 음악, 영화, 패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전개되었으며, 의상은 초현실주의의 영향으로 기존의 획일화에서 탈피하여 새롭고 전위적인 감각으로 다양화와 개성화를 가져왔다.¹⁵⁾ 초현실주의자들은 현실의 세계를 떠나 환상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자연을 이용하여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으며, 나무는 여성의 이미지를 대변하였다. 나무와 여성이 환상으로 하나의 형상으로 표현하여 초현실주의적인 미의 표현인 또 다른 자연물의 꽃은 여성미의 상징으로 풍부하고 아름다움으로 패션에 표현되었다.

III. 장 폴 고티에의 작품 세계

장 폴 고티에는 1952년 프랑스 파리 교외의 아르퀴엘(Arcueil)에서 태어나 Lyceed'Arcueil을 졸업했다. 그는 패션 잡지 등을 통해 피에르 가르망이나 이브 생 로랑 같은 위대한 디자이너의 영향을 받아 15살 때부터 열심히 작품을 디자인 하였다.

그는 오트꾸뛰르의 섬세한 기술, 그 기술의 감성화를 모색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1978년 그는 자사인 Jean Paul Gaultier S.A를 설립하였다. 장·폴·고티에는 지금까지의 의상 구조를 새로운 각도에서 재구성하려는 의욕과 패기가 넘치는 신구성주의 패션의 기수이며, 제3세대의 선두 주자이다. 그의 패션쇼는 매 시즌마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색적인 연출로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으며, 쇼의 연출 못지 않게 그의 패션은 신선하였다. 종래 의복이 갖는 상식적인 구성을 타파하고 그로테스크한 인형스타일을 선보이는가 하면 마메이드 라인이라는 인어스타일을 고안해 내기도 했다. 그가 주장하는 모토는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의상의 시적표현을 연출 하였다.¹⁶⁾

그는 모드에 음악, 예술, 문화 등 시대성을 가미시켜 누구에게나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자유가 살아 숨쉬는 의상을 만들었으며, 작품세계는 젊고 발랄한 이미지를 토대로 클래식과 모던한 에스프리를 믹스시킨 마술에 가까운 젊고 전위적이며 섹시한 멋과 유티가 있는 디자인의 주조를 이루는 작품을 전개하였다.

종래 의상의 상식적이고 전통적인 구성을 탈피한 그로테스크한 스타일과 전통스타일에 바탕을 두고 거침없이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내는 것이 그의 창작 스타일이다. 여성들이 의상을 선택하고 입는 행위는 하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자신만의 철학과 고집은 의상은 인간에 의해 창조되어 지는 피조물이 아니라 독립된 객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디자이너의 역할은 의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 뿐. 의상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은 의상의 자유를 박탈하게 되므로, 디자이너가 먼저 자유스러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많이 느낀다는 것, 이것이 시작이며 끝이다. 그리고 나를 앞서가게 해주는 에너지다’라고 하였다. 프랑스 모드계의 ‘무서운 아이’, 가장 전위적인 디자이너로 불리우며, 영국의 핑크룩에 프랑스의 고상함을 가미시킨 디자이너로서 ‘색채의 귀재’라고 불리우고 있다. 2003년 컬렉션에서는 레드, 그레이, 화이트, 옐로우, 블루, 오렌지, 블랙, 브라운, 베이지 등의 다양한 컬러가 사용되었다. 소재는 린넨, 면, 쉬폰, 가죽, 데님, 크로세 니트 등의 패브릭 매치가 시도되었으며, 스티치, 아플리케, 프린지, 굵은 바느질로 디테일을 강조하였다.

장 폴 고티에의 작품변천 과정과 시대별 작품을 살펴보면, 초현실주의가 추구한 이념의 표현방법인 데페이즈망(Depaysement)의 원리를 현대 복식에 다양한 각도로 적용시킴으로써 기존 복식의 일반적 개념과는 새로운 미적 개념을 제시하였다. 데페이즈망은 고정된 의상의 품목을 의상 내에서 위치를 전환하는 방법이다.

Gautier의 콜셋 모자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으



<그림 9> Jean-Paul Gautier (1986) Corset Dress Madonna Fashion & Surreal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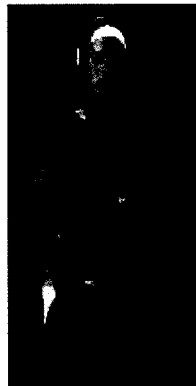
<그림 10> Jean Paul Gautier의 의상을 입은 (1990) Corsets et Soutiens-gorge Beatrice Fontanel

며, 이러한 용도변경은 모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하게 시도되어 초현실주의의 영향중 가장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아이디어가 되었다<그림 9>. 특히 언더웨어의 아웃웨어화 현상은 1980년대 장 폴 고티에가 디자인한 마돈나의 관습을 파괴한 무대의상으로 부터 시작해 꾸준한 인기를 누려왔다<그림 10>. 20세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혁명적 복식 행동 중 하나로 여성의 남성적 복식의 수용을 들었다. 그는 여성 평등을 위한 정치적 움직임과 성 역할의 변화는 성 혁명을 초래하여 복식에서 성의 혼돈을 출현시켰다고 설명하였다. 복식에 표현된 성의 혼돈 혹은 부재를 설명하는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20세기 이후 여성 해방과 같은 이념과 그 성과로서의 남녀 역할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왔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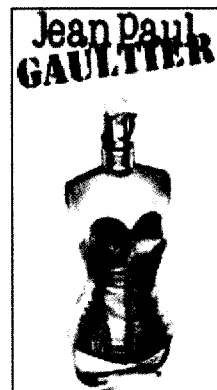
Peter Ackroyd는 transvestism을 fetishistic transve-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11-13> Jean Paul Gautier('90 S/S) "Histoires du Porte-jarretelles" Lili Sztajn

stism과 anarchic transvestism으로 구분하면서 fetishistic transvestism은, 성적퇴폐와 연관된 것으로, anarchic transvestism은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고 무질서를 표방하는 transvestism이라고 정의하였다.¹⁸⁾ 인체의 자연적인 선을 강조하기 위한 의상인 코르셋은 인류의 문명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초기문명에서 나타난 코르셋을 착용한 여인의 몸은 가슴과 둔부가 과장되게 강조되어 다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는 속옷 아이템의 걸옷화는 성적 상징의 노출로 해석되며, 현대 페미니스트들은 코르셋을 남성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속박하는 부끄러운 의복으로 간주하였다. 무대의상으로 집약되는 란체리룩은 여성들의 자유의식향상, 개성과 창의성의 중시, 생활방식의 변화, 예술이 주는 영감과 디자이너들의 창조욕구, 미에 대한 가치관 변화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개 되었다.¹⁹⁾ 그러나 오늘날의 코르셋은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장 폴 고티에의 마돈나 코르셋을 아웃웨어로 혼용함으로써 내의와 외의의 벽을 허물었다<그림 11>. 이것은 현대여성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책임이 있으며, 강요나 불편, 고통 그리고 패션을 스스로 결정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 폴 고티에는 소용돌이 모양의 브래지어와 코르셋, 가터벨트(garter belt)까지 올인원 된 여체의 토로스(torso)를 항수병으로 디자인 하였다. 손끝은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듯 손톱을 그대로 묘사해 주어 착용한 듯 가려진 채 은 강통의 잘려져 나간 뚜껑으로 재미난 발상의 데페이즈망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2, 13>.

장 폴 고티에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 나타낸 크로

스드레싱이 또 하나의 예이다.

크로스드레싱(cross-dressing)은 여자가 남장을 하거나 남자가 여장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크로스드레싱을 하는 사람을 크로스드레서(cross-dresser)라고 하며, 이성의 복장을 즐기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이들은 성욕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남장 또는 여장을 하는 경우이다. 여장 혹은 남장을 하기 위해 화장술을 개발, 더 완벽하게 이성의 복장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성전환 수술을 할 수도 있으며, 이성의 복장을 입는 것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목표이다. 페티시 패션에 있어서 콜셋은 가장 중요한 테마이며 빼놓을 수 없는 대상이다. 많은 노출을 한 여성이나 페티시한 의상으로 피부 위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전신을 피복한 관능적인 여성은 흔하게 등장하는 요소이다.^{20,21)} 장 폴 고티에의 토끼의상은 영화나 광고에 출연함으로써 대중에서 페티시 패션의 인식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검정 코르셋과 하얀토끼 귀, 남성의 전용물이었던 셔츠칼라에 나비넥타이는 흑백의 대비와 함께 크로스드레싱의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준다. 초현실주의자들이 자주 표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트롱프뢰이유(Trompe l'oeil)이다. 즉, 시각적인 착시를 말한다<그림 14>.

이성적인 질서의 조화를 피하기 보다는, 상징적 소재의 독립적인 사용과 의상의 기존 관념을 형식이나 전통에 순응하는 방향이 아닌 파격적이고 역설적인 형식이나 내용을 취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가장 자주 이용하는 방법은 주로 타투를 가장한 의상이 트롱프뢰이유 현상으로 나타난다. 전신에 타투를 한 것



<그림 14>



<그림 15>



<그림 16>



<그림 17> Jean Paul Gaultier (1995) 복식의 자연 오브제화
Mode et M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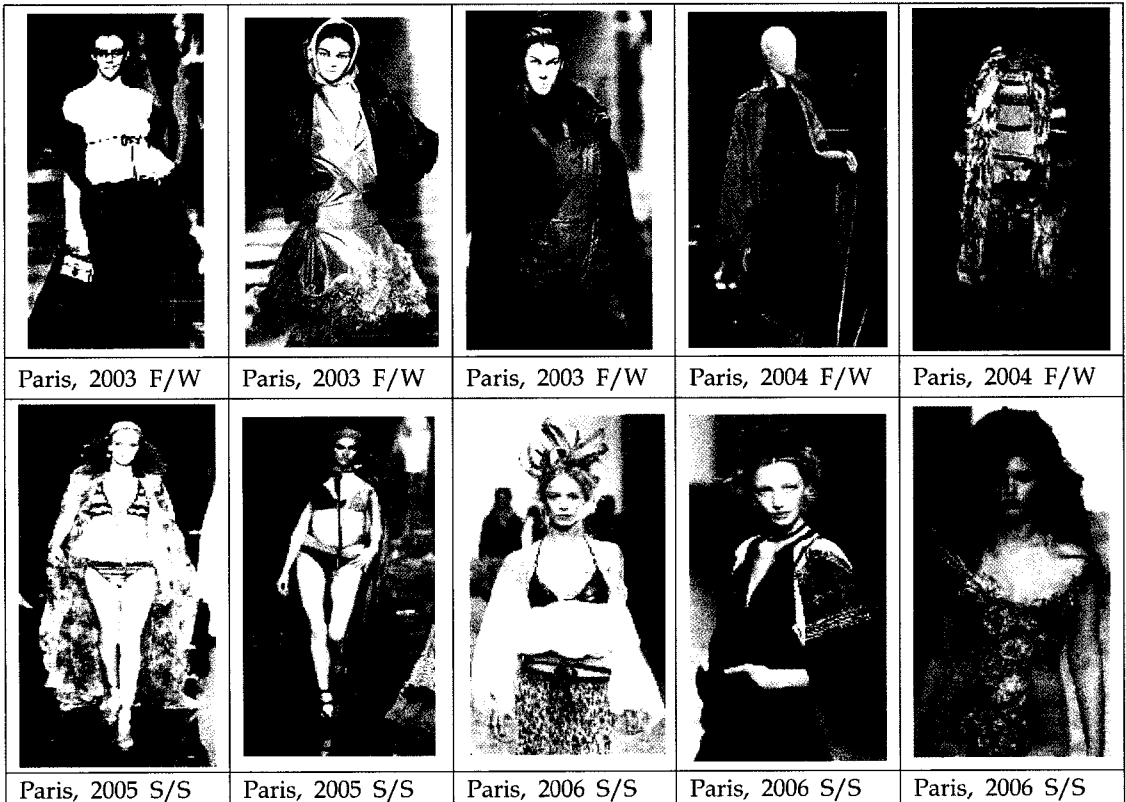
이다. 가슴과 음부는 한층 더 두껍게 수놓아졌으며, 블랙의 자수 사이로 보이는 은밀한 신체는 흑백의 대비로써 블랙 자켓과 함께 관중들에게 한층 더 에로틱한 느낌을 선사한다<그림 14-16>.

초현실주의 패션에서의 감각적 요소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장 폴 고티에의 심장과 핏줄은 가장 강렬하고 원초적인 빨강색으로 인간의 생명을 연상시키며, 동물 호르몬의 활동 및 성적인 기능을 증진 시키고 상처를 치료하기도 할 뿐 아니라, 식물의 성장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식물을 상징하듯 잎맥 모양으로 형성하여 표현하였다<그림 17>. 그의 작품을 아이템별로 살펴보면 의외로 트렌디한 성격이 내포하는 기발한 아이디어에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8>은 오튀꾸뛰르 컬렉션 작품을 중심으로 (2003' FW~2009' S/S)보여진 작품이다.

IV. 결론 및 제언

과 같은 시각적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소재는 실크와 같이 섬세한 질감인 장미무늬가 수 놓인 스타킹 재질

초현실주의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작가의 자율성을



<그림 18> Jean Paul Gaultier (2003' FW~2009' S/S)

				
Paris, 2006 S/S	Paris, 2006 S/S	Paris, 2007 S/S	Paris, 2007 S/S	Paris, 2007 S/S
				
Paris, 2007 S/S	Paris, 2007 S/S	Paris, 2007 S/S	Paris, 2007 S/S	Resort, 2009 S/S

<그림 18> Continued.

살릴 수 있는 내적주제에 의한 상상력의 개발이며 심리학적 통찰력에 의한 창조적 사고의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초현실주의 작가는 효과적 심리표출 소재로서 다양한 오브제 표현과 함께 인체와 정신의 이미지를 도입하였고, 인간심리의 심층적 해석에 따라 표현을 달리하며 예술작업으로 전개시켰다.

본 논문은 현대 패션의 초현실주의적 경향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장 폴 고티에의 작품세계에 나타난 그의 패션특성과 현대 패션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밝히고자 하였다. 장 폴 고티에가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조형성은 오토마티즘(automatism) 보다 데페이즈망이 단연 돋보이며 그 중에서도 언더웨어의 아웃웨어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하이힐, 코르셋과 언더웨어, 팔의 대부분을 뒤덮는 장갑, 스타킹,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롱부츠 등은 에로틱한 유혹을 발산하며 극단적인 신체 강조로 등장하는 초현실주의적 조형성을 나타낸 페티시 패션의 아이템들이다. 이들은 모두 신체를 최대한 감싸며, 뽕뽕 묶고, 변형시키

는 구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몸에 꼭 끼는 가죽 옷은 오히려 신체의 곡선, 가슴, 엉덩이의 볼륨 등이 강조되어 객관적인 미적 규범에 비추어 본다면 비정상적이고 어긋나며 이탈된 것은 우스꽝스럽고도 익살스러운, 그리고 기괴한 분위기를 전달해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준 그의 작품 란제리 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변용과 전위에 의해 충격과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었다.

장 폴 고티에 패션의 초현실주의적인 특징은 타파와 섹슈얼 이미지, 그리고 이질성의 혼합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격식 타파를 살펴보면, 장 폴 고티에는 남성복에 스커트를 도입하고 중성적인 여성복을 제시하는 등 복식에 있어서 성별을 파괴했다. 그리고 전통적인 모델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모델의 기준을 파괴하였다. 그리고 그의 많은 작품들은 복식 관습을 타파하는 충격적인 디자인을 보여주었으며, 속옷을 걸옷화하는 등은 터부에 대한 파

피를 나타내었다. 둘째, 섹슈얼 이미지는 속옷을 걸옷화한 마돈나의 콘 브래지어나 그의 향수병 디자인에서 특히 잘 나타났다.

셋째, 이질성의 혼합은 그의 패션에서 실용성과 비실용성, 전통과 혁신, 단순과 장식, 과거와 미래, 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가 혼재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클래식한 타입의 테일러드 자켓 위에 브래지어를, 팬츠 위에 속 팬티를 매치 시키거나, 롱팬츠 위에 다른 짧은 길이의 팬츠를 입히는 스타일 등의 믹스 & 매치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토대로 장 폴 고티에의 패션 산업 전략을 연구한 결과, 그는 브랜드 대중화를 위해 Jean-Paul Gaultier, JPG, Gaultier Jeans, 액세서리 4개의 라인으로 나누어 세계시장을 공격하였으며, 그가 주도한 ‘안티모드 반 패션(Anti-mode van fashion)’이라는 디자인 혁명 운동으로 인해 초현실주의적 패션은 일부 전위파 디자이너들의 제세의 단계를 넘어 일반 소비 대중에게까지 실용화시킨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여러 문화가 융합된 다양한 패션 스타일 속에서 초현실주의적 스타일은 더욱더 다양하고 새로운 성격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이며, 여러 가지 테크닉과 새로운 성격으로 트렌드를 이끌 전망이다. 앞으로의 방향은 장 폴 고티에는 현재 활동하는 디자이너이므로, 인터뷰를 통한 여러가지 테크닉과 좀더 정확한 그의 작품 세계나 패션 산업 전략을 입수 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실질적으로 초현실주의적 패션이 얼마나 브랜드 대중화를 시켰는지, 또한 대중화를 시킬 수 있었던 요인을 조사하여 미래 패션에 끼칠 영향을 예측하여 실무에 대한 분석과 패션트렌드에서의 고급문화를 창출해내는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삼성디자인연구소, ‘Fashion History’, www.samsungdesign.net/historyDB.
- 2) 이효진 (1994). 현대 의상의 직물문양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의 무의식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p. 5.
- 3) 최은진 (2003). 장 폴 고티에 (Jean Paul Gaultier)의 작품이 현대 패션에 준 영향에 관한 연구: 아방가르드와 표현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최영옥 (2002). Jean Paul Gaultier 작품에 나타난 의적 해체경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4권 통권18호, pp. 327-338.
- 5) C. W. E.Bigshy, 박희진(역) (1980). “다다와 초현실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p. 111.
- 6) 최향숙 (1987). 초현실주의가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p. 15.
- 7) 중앙일보사(1989). 세계미술용어사전, p. 377.
- 8) 오토마티즘(Automatism): 자동기술법 또는 정신 자동법을 의미하며 이는 일체의 이성의 통제나 미적, 도덕적 선입관이 배제된 경지에서 행해지는 사과의 받아쓰기의 한 방법이다.미술의 영역에서는 자동적 소묘라 하여 외계의 대상과는 관계를 맺지 않고 무념 무상의 상태에서 순수하며 무한한 현상을 무의식의 정신 현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 9) 삼성디자인넷(www.samsungdesign.net)
- 10) 조윤희 (2001). 초현실주의 경향의 패션사진 작품개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49.
- 11) 데페이즈망(Depaysement): ‘사람을 타향에 보내는 것’ 또는 ‘다른 생활 환경에 두는 것’ 을 의미 한다. 초현실주의에 있어서 데페이즈망은 전위 전치법, 또는 병치 등의 의미로 사용 된다. 이는 물체나 영상을 그것이 놓여 있던 본래의 일상적인 질서나 배경, 분위기에서 떼어내 전혀 그 사물의 속성과는 연관성이 없는 엉뚱한 장소에 놓음으로서 보는 이로 하여금 외관상 이질적인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인 충격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이다.
- 12) 에른스트 H. 고프리치, 백승길역(2003). 서양미술사, 서울: 예경.
- 13) 정홍숙 (2002). 서양복식문화사. 서울:교문사, p. 373.
- 14) 하지수 (1994).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복식, 22(5), p. 71.
- 15) 삼성디자인넷(www.samsungdesign.net)
- 16) 김종복 (1986). 패션철학과 작품세계. 서울:시대북장학원, p. 75.
- 17) Jane Grove (1971). Fashion, London: Macmillan Education Ltd., p. 16.
- 18) Evans, Caroline & Thornton. Minna(1989). Women and Fashion. A New Look. New York : Quartet Books, p. 38.
- 19) 이정후, 안선경, 양숙희 (1997), 현대복식에 나타난 매너리즘(Mannerism)적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 33호, p. 168.
- 20) 랜덤하우스 영한대사전 (1991). 서울:시사영어사, p.541.
- 21) 이정후, 양숙희(1997). 크로스 드레싱(cross-dressing)에 관한 연구. 복식, 35권, pp. 115-122.